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0 – 05K

공공 사회기반시설과 성평등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례 분석

Cem Oyvatt, University of Greenwich
Özlem Onaran, University of Greenwich
Translated by Sung Ah Bahk

CWE-GAM Working Paper Series: [20-01](#)

POLICY HIGHLIGHTS

- 한국에서 공공복지지출 확대는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단기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지출 확대는 비농산물 생산 증가와, 남녀 고용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여성 고용확대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성별 고용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임금과 재정정책을 포괄하는 복합적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모형 구조

- Onaran, Oyvatt, Fotopoulou (2019)의 모형에 노동공급 선택과 협상모형을 추가하였다.
- 위 모형은 공공사회부문, 시장경제 부문, 그리고 무급 돌봄부문을 포함한다.
- 공공사회부문은 정부의 교육, 보육, 보건, 그리고 사회돌봄 지출로 구성된다.
- 각 효과가 남성과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Onaran, Oyvatt, Fotopoulou (2019) 연구에서 소개된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와 교육, 돌봄이 총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의 사례 연구 결과,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하여 노동 시장과 재정을 포괄하는 복합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성 불평등

한국은 고소득 국가임에도 큰 성별 격차가 남아있다. 2018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별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서 88위를 기록했으며, 성별 임금 평등에서 121위에 그쳤다. 또한 무급 돌봄노동은 종종 여성의 몫으로 여겨진다.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성 불평등에 돌봄 시설의 미비가 더해져 고령화 사회에 심각한 인구학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 사회기반시설 확대의 중단기적 효과

모형에 따르면, 공공지출의 단기적 효과는 고용, 총 임금지출, 가계부문의 사회복지지출 확대가 있다. 동시에, 임금 상승으로 인해 사회복지지출 이외의 가계 지출 또한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총생산의 단기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공공지출이 시장 경제의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늘어난 공공부채로 인해 민간투자가 저해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벡터자기 회귀모형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공공 사회기반시설 지출 확대가 총생산과 고용 확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¹ CWE-GAM Working Paper Series [19-04](#), summarized in Policy Brief [20-01](#). Brief prepared by: Cem Oyvatt, Özlem Onaran, and Catherine Hensly
Translated by Sung Ah Bahk
CWE-GAM Working Paper 20-01: [The Effects of Public Social Infrastructure and Gender Equality on Output and Employment: The Case of South Korea](#)